

시즌1도 득점 순서 조작...제작진 징계·교체

끊이지 않는 예능 '악마의 편집' 진심 다해 된 출연자들만 피해 MBC '방과후설렘'도 편집 비판 평론가 "재미보다 진정성 중요"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 최근 방송뿐만 아니라 시즌1에서도 조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모델팀 'FC구척장신'과 가수·방송인 팀 'FC원더우먼'의 경기 장면. 사진제공 | SBS

SBS 스포츠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후폭풍이 거세다. 축구 시합의 중간 스코어를 조작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즌1에서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일했다"는 제작진의 사과에도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SBS는 27일 책임 프로듀서와 연출자에 대한 교체 및 징계 절차를 내리는 등 '초강수'를 두며 수습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재미만능주의'를 표방한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가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 벌어지지 않은 일을 편집으로 연출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골때니' 애꿎은 출연자만 피해

이날 SBS는 "자체 조사 결과 시즌 1·2 모든 경기의 승패 결과 및 최종 스코어는 바뀐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일부 회차의 골 득실 순서가 실제 방송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 재미라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더라도 골 득실 순서를 바꾸는 것은 그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6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방송한 시즌1에서도 편집을 통해 득점 순서를 바

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SBS는 "책임 프로듀서 및 연출자를 교체하여 제작팀을 재정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심기일전하기 위해 29일 방송은 결방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사가 "출연진의 진심을 잊지 않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출연자와 시청자의 불신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의 개인 SNS에 방송 관련 문의와 비판을 쏟아내 다들 난감했다"면서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쓸쓸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출연자는 혼란 속에서도 남은 연습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

● '예능 편집? 소재에 따라'

최근 '방과후설렘'도 편집 논란을 빚었다. 방송에서 심사위원인 소녀시대의 유리가 의도치 않게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를 무리하게 합격시킨 것처럼 그려 문제가 커졌다. 유리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편집된 영상들을 추가 공개하며 "편집 과정에서 전체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10월 중영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방송 초반 출연자간 대결 구도를 강조하려다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이후 출연자들의 '리스펙'(존중)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도 각종 경연프로그램에서 '악마의 편집'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편집에 대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더욱 커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예능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재미를 위한 편집은 일부는 필요하다"면서도 "소재에 따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골때니'가 인기를 끈 이유는 축구 리그를 표방해 진정성 있는 승부를 그려왔기 때문인데 제작진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또한 "오디션, 스포츠, 관찰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은 리얼리티와 진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해당 소재를 다룬다면 단순한 재미를 추구하기보다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신하다 vs 지루하다...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극과 극 평가

공개 사흘만에 인기 TV쇼 4위 올라 해외매체 "만족과 실망 동시에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가 '케이(K)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공개된 드라마는 사흘만인 27일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해외 언론매체들도 관련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고요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높은 화제성에 비해 국내의 시청자 반응은 "참신하다"는 의견과 "지루하다"는 혹평이 극과 극으로 엇갈려 눈길을 끈다.

이날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 콘텐츠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스트에 따르면 '고요의 바다'는 세계 넷플릭스 인기 TV쇼(프로그램) 부문 4위에 올랐다. 전날 7위였던 순위를 하루 만에 3단계나 올렸다. 한국과 일본·태국에서 1위, 미국·캐나다 등에서 3위에 랭크됐다. 세계 최대 리뷰 사이트인 IMDB에도 이날 오후 현재까지 200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평점을 남겼다. 평점은 10점 만점 중 7.1을 기록했다. 영어로 작성된 리뷰도 80여개나 달랐다.

국내의 이용자들은 달과 우주를 실감나게 표현한 세트와 컴퓨터그래픽(CG), 배우나·공유 등 주연들의 연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극중 그려지는 물 부족 사태가 "현실적

이고 공포스럽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또 8부작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루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IMDB의 한 이용자는 "공상과학(SF) 장르여서 반갑지만 줄거리는 다소 평범했다"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Not really good, Not really bad)"라고 소감을 남겼다.

해외 언론매체들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는 "SF장르 팬들은 만족스러울 것"이라면서 "8편의 에피소드는 지루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만족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덧붙였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최신 실재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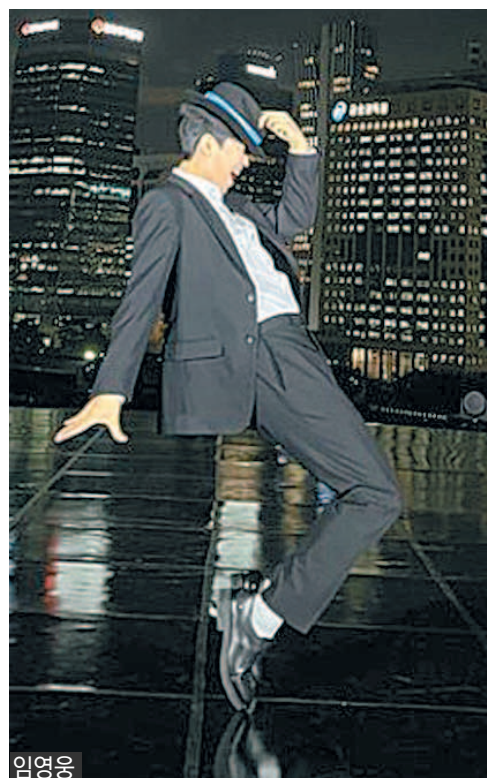


고요의 바다

라며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을 SF 장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혹평했다.

각기 다른 반응 속에서 넷플릭스는 주연 배우인 배우나, 공유의 인터뷰 등 각종 프로모션을 벌이며 '통탄'을 노린다. 제작자로 나선 배우 정우성도 인터뷰와 각종 예능프로그램 촬영에 나서면서 힘을 보탠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임영웅

'TV 단독쇼' 마친 임영웅, 정규앨범으로 귀환

TV 무대에서 수록곡 일부 공개 화제 "타이틀 고민"…내년 초 발매 예고

'TV 단독 쇼'로 2021년을 마무리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내년 초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27일 가요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은 새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수록곡 일부 등 녹음 작업을 마쳤고, 타이틀 곡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의 신곡은 최근 KBS 2TV 주말드라마 OST '사랑은 늘 도망가'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히어로(Hero)'를 제외하고, 트

로트 경연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곡이 전부이다. 하지만 내놓는 곡마다 음원사이트에서 인기를 끌며 현재도 '음원 줄세우기'를 할 정도로 '차트 킹'으로 불리는 만큼 임영웅의 정규앨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9월 중순 '미스터트롯' 특과 1년 6개월간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마치고 본 소속사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앨범 작업 등을 시작했지만, 완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발표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특히 송년특집으로 26일 방송한 KBS 2TV '위 아 히어로 임영웅'(We're HERO 임영웅) 무대 연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이번 공연은 임영웅의 이름을 딴 첫 단독 'TV 쇼'이자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취지에서 '노 개런티'

로도 참여했다.

임영웅은 이번엔 내년 발표할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도 일부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사랑해'라는 제목의 곡은 트로트 발라드 임영웅은 곡을 소개하며 나태주 시인의 시 '들길을 걸으며'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과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그저 그런, 평범했던 저의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준 여러분이 저의 영웅"이라며 노래를 불렀다.

특유의 담백하고 애절한 감성으로 팬들을 녹인 임영웅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임영웅의 단독 쇼는 16.1%(닐슨코리아)로 기록했고, 앞서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방송한 나훈아와 심수봉의 단독 쇼는 각각 29%와 11.9%를 집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트와이스, 내년 4월 일본 도쿄돔서 2회 공연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4월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연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7일 "트와이스가 월드투어 '트와이스 네 번째 월드투어 쓰리'(TWICE 4TH WORLD TOUR 'III')를 4월23·24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25·26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공연을 시작해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포트워스, 애틀랜타, 뉴욕 등 5개 도시에서 7회 공연을 펼친다. 이들이 일본에서 팬들을 만나는 것은 2019년 '트와이스라이츠 인 재팬' 이후 약 2년 만이다.

모모랜드, 멤버 선발 오디션 부정 의혹 벗어



모모랜드

걸그룹 모모랜드의 선발 과정을 그린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부정행위 의혹을 벗었다. 모모랜드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27일 "지난해 1월7일 KBS 1TV 'KBS 뉴스 9'가 2016년 방영한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 중 멤버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혐의를 당사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원이 당사의 손을 들어줘 25일 'KBS 뉴스9'가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모랜드 멤버 선발 과정에서 일체의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모랜드는 2016년 11월 데뷔해 노래 '뽀뽀' '어머마마' 등을 발표했다.

조인성·임세미·노희경 작가 등 연탄 지원 봉사

배우 조인성, 임세미, 노희경 작가 등이 연탄 지원 봉사에 나섰다. 27일 국제구호단체(사)한국JTS는 "최근 방송·영화·연극인들이 모인 봉사단체 길벗과 함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탄 지원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 현장에는 조인성, 임세미와 함께 조혜정, 정성환, 아이돌그룹 동키즈 멤버 경윤·재찬·종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5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노희경 작가는 "따스함을 전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매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효리,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 참석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 나섰다. MBC는 27일 "이효리가 29일 오후 8시4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상자, 축하 무대 가수 등 출연 행태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해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로 호흡을 맞춘 방송인 유재석도 참석한다. 이효리는 지난해 '방송연예대상'에서 뮤직&토크 부문 최우수상, 유재석과 베스트커플상을 차지했으나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소감을 남겼다.

브레이브걸스, 첫 단독 콘서트 코로나로 연기



브레이브걸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첫 단독 콘서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27일 "내년 1월15·16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브레이브걸스의 단독 콘서트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공연하고자 했으나 강도 높은 코로나19 확산세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콘서트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2018년 내놓은 노래 '롤린'으로 올해 '역주행' 인기를 얻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